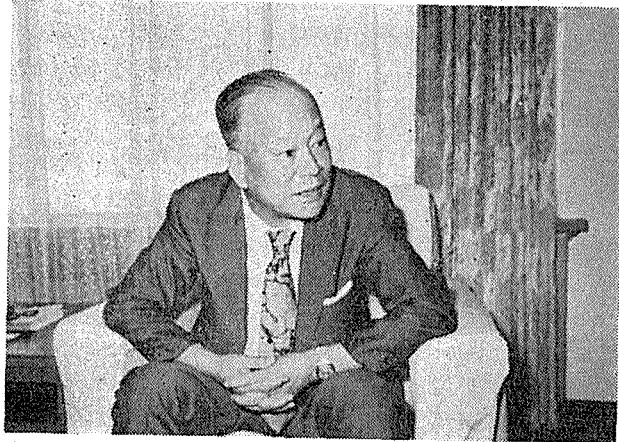


韓國의 電子工業을 世界水準에 올린 三星電子 趙容達社長에 叙勳



科學技術界의 有功者로서 今年 光復節에 國民勳章 桓栢章을 받은 바 있는 三星電子工業社長 趙容達(工學)博士를 찾았다.

趙社長은 記者와는 師弟之間이고 二十餘年만에 뵙게 되어 非常老熟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老益壯한 모습에 亦是 大企業의 經營主다운 面貌를 엿 볼 수 있어 기뻤다.

電子工業의 展望을 묻는 記者에게 첫마디로 韓國에서 輸出戰略產業으로 電子工業을 擇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4·5年前부터 韓國에 電子工業붐이 일어나相當히 많은 會社가 생겼지만 現在 아마도 많은 業體가 不況에 허덕이고 있을 것이란다.

그러한 不況속에서 唯獨 三星電子는 날로 隆盛해 간다기에 그 秘訣을 물었다.

對答은 出發點이 달랐단다. 가장 뒤늦게 始作했으면서 가장 앞서게 된 데에는 역시 남보다 넓은 視野로 目標를 海外市場에 두고 있는 것 같다.

即 三星電子는 처음에多少 苦役이긴 해도 輸出에 重點을 두었고 輸出을 目標하다 보니 合作과 技術導入에 눈을 돌리게 됐고 技術習得에 全力해야 했다. 따라서 現在 國內에서 어느 業體보다도 技術面에서 앞서게 됐고 이는 三星상요 텔레비전이 美國에서 날로 販路를 擴張해 가고 있는 實績으로 立證되고 있다.

韓國의 電子工業이 輸出戰略產業으로 脚光을 받는 理由로 첫째, 勞動集約의 事業이며 投資에 比해 附加價值가 크다는 点.

둘째, 世界的의 經濟 추세로 미루어 앞으로 電子製品의 需要가 急增하리라는 点을 趙社長은 든다.

今年 現在 三星상요에서만 이미 텔레비전 受像機를 10餘萬臺 輸出하고 있다고는 하나 日本의 100萬臺(黑白) 臺灣의 300萬臺

臺에 比하면 比較가 안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 電子工業界가 더욱 世界的인 眼目에서 企業活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趙社長은 反問하면서 三星에서 텔레비전을 市販하는 것을 不平하는 餘他業體의 態度를 理解할 수 없다고 했다.

아마도 生產規模나 技術의 優位로 威脅을 받은 때문이 아닐까? 어쨌든 趙社長은 그러한 國內의 餘他業者들의 不滿을 介意하지 않고 企業의 正常化를 為해 餘力이 있는限 國內市販에 크게比重을 둘 方針이라고 한다.

競爭속에 發展이 있는 것이니 商道義를 저버리지 않는 善意의 競爭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제 三星電子는 世界市場에서 競爭相對를 찾고 있으며 三星製의 部品을 世界 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趙社長은 자랑한다.

여기 三星電子 · 三星상요 · 三星NEC에서 生產되는 部品을 몇 가지 紹介하면, 브라운管 · 真空管 · 스피커 · 트랜지스터 等이 있다.

이 生產工場에 從事하는 職工만도 3千餘名이며 텔레비전 日日 生產量이 5百臺란다. 이는 完全히 콤비어 · 시스템인 一貫作業으로 이루어진다.

엔지니어 출身으로 經營主가 되었으니 工場施設이 얼마나 科學的인가겠는가 짐작이 간다.

더우기 趙社長은 第一毛織을 비롯 第一製糖 · 肥料工場 等 여러 工場을 세운 經驗이 있고 늘 國內工場의 零細함을 개탄했던 터라 現在 三星電子가 健實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趙社長의 企業人으로서의 完璧한 姿勢는 그 화려한 經歷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趙社長은 말하기를

“國家民族에 利益이 되는 企業이라야 합니다. 個人的 榮達이나 致富만을追求하는 企業은 반드시 亡합니다.”

한편 누구보다 外國技術導入에 果敢했던 趙社長은 電子工業育成에 政府의 積極적인 施策을 促求하면서 이번에 크게期待했던 科學技術開發促進法이 起草할 때의 當初理念과는 거리가 먼 內容이 된 데 失望하고 있었다.

끝으로 後輩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하니

“理想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韓國의 現實을 똑바로 認識하고 自己가 서 있는 땅에 먼저 발을 부쳐야 합니다”

外國을 相對로 장사하는 趙社長의 이 말에는 깊은 哲學이 있음을 직하다.

孫子兵法의 어느 句節을 連想케 한다. 三星電子의 產業戰線에異狀은 결코 오지 않으리라. (鎧)